

공공 주도 주택 84만호 공급

정부가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 주택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중산층의 청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4일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서울 역세권에선 70%, 준주거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주주택 조성 등에 활용한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사업기간이 기존 13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

2·4 부동산 대책 발표

2025년까지 수도권 62만호

5대 광역시 22만호 공급

공공주택복합사업 한시 추진

역세권·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공공시행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 13년→5년 단축

70~80% 공공분양 '투기 차단'

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저층주거지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 만들어진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LH 등 공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한적으로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도입돼 도시재생지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펼쳐진다.

투기수요 차단 방안도 마련돼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사업추진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자본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공공임대 위주로 쓰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부채납 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택 수요자에게도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취지다.

이 외에 비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 주택 매입약정 등을 통해 10만10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 등 수도권에 61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32만3000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이며 강남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하다. 83만6000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15곳 내외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주택에 일자리, 돌봄, 육아 등 사회서비스와 다양한 생활 SOC를 결합해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만드는 '주거뉴딜'도 추진된다. 대책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선 공공기관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이번에 신설된 주택 공급 방식으로 나오는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지만 이를 5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로 AI 차단”

전남농협, 가금농가에 장화 740켤레... 귀성객 방문 자제 당부



박서홍(맨 왼쪽) 농협 전남본부장이 합평 가금농가 방역 담당자에 AI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한 장화를 전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협 전남지역본부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금농가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4일 밝혔다.

전남본부 측은 “고병원성 AI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바이러스 전파력이 빠르고 피해규모도 크다”며 “가금농장에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가금농가 방역 기본수칙은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출입 차량과 사람 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및 꼼꼼한 소독 등이 있다.

전남본부는 축산 관련 차량은 철새도래지를 방

문하지 않고,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여행객은 축산농장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과 김영주 합평축협 조합장, 김천국 농협 합평군지부장은 최근 전남지역 가금농가에 바이러스 전파 방지용 장화 740켤레를 전달했다. 박 본부장은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임직원과 농가들이 힘을 합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angju.co.kr

설 제수용품 아는만큼 국산 살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



대추는 표면의 색이 연하고 향이 진하며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것, 밤은 알이 굵고 윤택이 많이 나면서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는 것이 국산이다.

국산 곱감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꺾여 있고, 국산 간도라지는 길이가 짧고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아 일부가 남아 있으며 깨물어 보면 부드러운 느낌으로 쓴맛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고사리는 줄기 아래 단면이 불규칙하게 잘려져 있고 먹을 때 줄기가 연하게 느껴져야, 생표고버섯은 갓 크기가 넓적하고 불규칙하며 자루가 깨끗

하고 신선도가 좋아야 국산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과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 '업무소개-원산지 관리-원산지 식별정보'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전남지원은 농식품을 살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에 의심이 가는 경우 농관원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적십자회비 납부율’ 전남 최고·광주 최저

최근 5년 전국 평균 16.9% ... 전남 35.8%·광주 8.1%

국민 성금인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전남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016~2020년) 적십자회비 발송건수에 비해 납부 비율은 광주 8.1%, 전남 35.8%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전체 납부율은 16.9%로, 지로통지서가 발송된 1억437만건 가운데 1761만8036건만 납부됐다.

납부율은 대도시가 아닌 도(道) 지역에서 높았다. 제주 납부율이 40.4%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5.8%(371만1339건 중 132만9019건)로 뒤를 이었다. 경북(30.7%), 경남(29.6%), 강원(24.3%), 충남(22.7%), 울산(21.8%), 세종(19.8%), 충북(18.9%), 전북(17.9%), 경기(11.8%) 등 세종과 울산을 제외한 9개도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이어 서울(27.2%), 부산(15.0%), 대구(14.5%), 대전(13.2%), 인천(12.6%),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